



‘닭’ 품종개발 서둘러야 한다!

‘닭고기 씨앗’ 90% 수입품종 의존 현실! 국산품종 30% 목표로 대책사업 착수

이번엔 ‘닭’ 종자 얘기부터 꺼내야겠다.

예나 지금이나 ‘씨앗전쟁’은 치열하다. 더욱이 요즘 들어서는 품종개발에 따른 과학적인 업적은 거론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가치로만 따져도 종자로열티 권리행사가 장난이 아니다. 씨앗 로열티는 거둬들이는 입장에서선 쓸쓸한 수입원이 되는 반면 특허료를 반드시 줘야 되는 처지라면 여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요즘 잘 나간다는 반도체 시장규모는 연간 2조달러가 된다. 그런데 세계 종자시장 규모는 이의 2배가 되는 4조달러라니 품종싸움이 날만하다.

이처럼 크고 중요한 경제적인 가치를 지닌 종자시장을 우린 너무도 쉽게 주춤 거렸거나, 지나쳐왔던 게 아닌가 싶다.

그동안 해외로 고스란히 빠져 나간 종자로열티만 봐도 지난 2001년엔 5.5억원 남짓 그쳤으나 지금은 이의 37배가 넘는 205억원이 지불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여기에 한술 더 떠 보면, 오는 2020년에 지불될 씨앗 로열티가 8천억원까지 불어날 것이라니 개탄을 넘어 다급해졌다.

총 갈만 안들었지 그야말로 ‘종자전쟁’ 이랄 수 있다.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우리도 수년전부터 축종개발과 품종



나 남 길 편집국장
한국농촌경제신문

개발 문제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개선을 서둘러 봤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특히, 닭 품종 개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당장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통계수치만 들여다봐도 품종개발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동안 가축질병이라는 변수는 있었다지만 국내에서 유통됐던 돼지와 닭 품종은 대부분이랄 수 있는 90% 가량을 해외 수입종에 의존해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먹어왔던 게 현실이다.

현재 축종별 생산액으로만 따지자면 돼지는 4조5천446억원이고, 닭은 2조1천860억원에 이른다. 계란도 1조5천599억원으로 적지 않은 생산액이지만 원천소득이랄 수 있는 닭 종자의 품종 개발엔 너무도 등한시 됐던 부분이 없지 않다.

이러다 보니 종계수입량이 2006년 26만9천불에서 2011년 108만불로 4배까지 꺾충 뛰어 올랐다.

품종개발은 원천기술을 내 손에 쥐고 있는 매우 소중한 기술적 노하우이자 곧바로 경제적인가치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들 축종의 품종개발은 하루가 급한 일이라고 봐야 한다.

조금 색 다른 얘기 같지만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해태 '김' 씨앗도 그동안 일본품종이 대부분 뿌려졌으나, 로열티문제가 불거지면서 지금은 품종 국산화율이 60% 수준까지 올라

왔다. 이 외에 딸기 씨앗도 74%, 옥수수 70%, 버섯 45%까지 국산 씨앗으로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다.

앞으로 좀 더 달라질 것 같아 다행스러운 부분도 있다.

GSP라는 '황금씨앗' 국책사업이 대대적으로 전개되면서 닭 품종 국산화율 목표를 30%로 잡았고, 돼지품종 국산화율도 90%까지 올리겠다는 발표가 나왔다. 이를 위해 올해 17억원의 예산을 포함해 연평균 65억원, 2021년까지 총 545억원이라는 투자계획이 세워져 있어 지켜볼 일이다.

어찌보면 우량 품종개발을 위한 이 같은 예산은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씨앗 발굴을 위한 이러한 열정과 관심만 모아진다면 씨앗 산업은 예산을 뛰어 넘는 부가가치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다.

다만, 지난 10여년전에도 씨앗산업이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으로 평가돼 잘 진행돼 오는 듯하더니 흐지부지됐던 사례를 교훈 삼아 이번엔 더 분발해 줘야 한다.

특히, 축산분야 중에서 닭 품종에 대한 국산화율을 높여져 닭고기 씨앗이 해외 수출산업의 효자축종으로 되도록 큰 기대를 걸어본다. 